

꽃담은 화려하지 않아도 보는 이에게 즐거움 줘

❧ 담장(1)

담장은 여러 가지 재료를 갖고 일정한 높이로 쌓은 수직적 구조물로 경계표시 시선차단 통행제한 차폐 방음 방화 등의 기능을 한다. 담장의 초기형태는 간단한 목책이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 재료를 사용해 만든 기능적인 울타리였으나 점차 발전해 기능성은 물론 장식성까지도 추구하는 경관요소로 발전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담장을 중요하게 취급해 왔다. 일찍부터 정주생활을 하게 되면서 외부의 다양한 공격을 방어할 필요가 있었고, 토지를 중요한 재산으로 생각하게 되면서부터는 경계를 분명히 해 그것을 지키고자 했다. 이렇게 기능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입됐던 담장은 점차 심미적 경관의 대상으로 발전됐고,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장식적 담장을 만들게 되었다. <삼국사기> 옥사조에는 담장의 높이와 축조방식 치장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담장이 일찍부터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가 미루어 짐작된다.

담장은 재료와 축조방식 디자인에 따라서 다른 형식을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 담장의 재료는 주로 흙돌 벽돌 외편 식물 등 다양하며, 이러한 재료를 갖고 사교석 담장 꽃담 외편담장 돌담 토담 토석담 생을 타리 등을 만들게 된다.

우리나라 건축공간의 담장 가운데에서 장식성이 뛰어난 담장은 역시 궁궐 담장에서 찾을 수 있다. 경복궁 자경전 꽃담이나 창덕궁 낙선재 꽃담, 덕수궁 꽃담은 화려하면서도 품위가 있는 담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찰에도 아름다운 담장이 많다. 궁궐의 담장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특화된 디자인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사찰에 만들어진 담장 가운데에는 불교적 상징성을 표현한 것들도 있어 경관적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궁궐이나 민가, 서원에서 볼 수 있는 담장과는 차별화된다.

외편담장

사찰 건물들은 대부분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다. 기와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변위를 해야 하는데, 변

담장, 기능성 넘어 장식성까지 추구

<삼국사기> 옥사조 담장 엄격히 규정

사찰 외편담장 저마다 특색

꽃담, 화장 벽돌 이용해 각종 문양 연출

위를 하게 되면 한기와편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까닭으로 사찰에서는 외편을 재료로 사용한 담장을 흔히 볼 수 있다.

외편담장은 외편만을 이용해서 쌓아올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외편을 한 켜 놓고 흙을 채우고 다시 외편을 놓고 흙을 채우는 일을 반복해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담장을 만들게 된다. 이때 기와는 온장을 쓰기 보다는 반 정도 갈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찰의 외편담장은 외편을 갖고 다양한 문양을 만드는데, 수기와와 암기와를 적절히 혼합하면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담장을 만들 수 있다.

외편담장 가운데 백미는 역시 낙산사 담장이다. 낙산사 담장은 원통보전과 7층 석탑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으로 2005년 발생한 화재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낸 절의 보물과도 같은 존재이다. 이 담장은 전체길이가 220m, 높이는 3.76m에 달하며, 부분적으로 수리하기는 했으나 원형이 잘 보존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됐다.

낙산사 담장 구조를 보면 안쪽 면은 2단의 장대석 기단 위에 다시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담장을 쌓았다. 바깥 면은 2-3단의 넷돌로 기단을 쌓은 후에 담장을 올려 구조를 달리했다.

담장의 축조상세를 보면 층이 나게 평기와, 강회, 진흙을 차례로 쌓아 만들었고, 평기와를 6~7단 쌓은 다음 상하가 서로 엇갈리게 원형의 화장석을 박아 넣어 재료 및 형태에서 변화를 주었다. 이 담장은 각각 다른 재료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미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면 담장에 박아 넣은 둥근 화장석이 마치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는 것처럼 보여 천지의 운행과 삼라만상이 이루는 오묘한 조화를 보는 듯하다.



외편 담장 중 백미로 꼽히는 낙산사 담장

이러한 외편담장은 자재업 은해사 운문사 불영사 백양사 직지사 파계사 등 많은 사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사찰의 외편담장은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

낙산사 외편담장처럼 기와를 높여서 쌓는 경우도 있지만 세워서 쌓는 경우, 비스듬히 쌓는 경우, 암기와를 겹쳐서 쌓아올린 경우 등 외편을 놓는 방법이 다르거나 하부의 기단을 낙산사와 같이 장대석으로 하는 경우, 은해사와 같이 자연석으로 하는 경우, 백양사와 같이 토석기단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기단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달라 담장의 디자인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꽃담

꽃담은 화장벽돌을 이용해 각종 문양을 베풀어 쌓은 담장이다. 경복궁 자경전 꽃담의 경우 하단에는 사교석을 몇 단 놓고 화장벽돌로 문양을 연출하였는데, 무시무종의 무늬를 비롯해 수복강령을 의미하는 문자무늬, 장수를 뜻하는 귀갑무늬가 있고 목단을 비롯한 각종 꽃을 별도로 화판에 새겨 넣기도

하였다. 이 담은 꽃담 가운데에서도 가장 화려한 사례로 손꼽힌다. 궁궐 이외의 공간에서 만들어놓은 꽃담은 궁궐의 꽃담처럼 화장벽돌을 사용해 본격적으로 무늬를 새겨 만든 꽃담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만 외편을 이용해 단순하고 소박한 문양을 연출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꽃담은 사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찰에 만들어놓은 꽃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쌍계사의 꽃담, 범주사의 꽃담, 천은사의 꽃담을 꼽을 수 있다.

쌍계사 꽃담은 하부에 자연석을 여러 단 쌓아 기단을 형성하고 그 위에 진흙을 넣으면서 외편을 비스듬하게 높여서 쌓았는데, 외편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두 단으로 쌓았다. 다시 그 위에는 외편으로 단순한 문양을 만들어 넣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쌍계사 꽃담은 서로 다른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 넣었는데, 기단으로 사용한 자연석의 투박함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소박한 문양이 잘 조화되어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더구나 담장에 덩굴성 식물이 붙어 윤치를 더한다. 다른 쪽 담장에는 외편을 잘라 꽃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것 역시 투박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을 준다.

범주사 담장은 장대석을 2단으로 쌓아올리고 그 위에 돌과 외편, 둥근 모양으로 깎은 화장석을 적당하게 배치하고 그 사이에 희(鬪)자를 새겨 넣었다. 다양한 재료의 조합 그리고 의미 있는 문자를 새긴 범주사의 꽃담은 특별한 장식성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손꼽힌다.

천은사 담장은 비교적 낮은 장식담장으로 회반죽 사이에 평기와를 높여서 한 켜 한 켜 쌓아 올리고, 가운데 공간에는 프레임을 만든 다음 외편을 잘라 꽃을 만들어 넣었다. 사찰의 꽃담들이 화려하거나 요란스럽지 않듯이 이 담장 역시 단순·소박하게 만들었는데, 정갈한 이미지를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추상화를 보는 듯 하여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쌍계사 꽃담은 사찰 꽃담의 대표적 사례다.



천은사 꽃담은 외편을 잘라 꽃을 만들어 넣었다.

책을 통해 바라본 우리 불교미술의 발자취 - 불교를 통해본 우리문화, 우리미술

그림으로 만나는 부처의 세계

한국의 불교미술은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이룩된 가장 전통적 그림이라 할 수 있다. 대종석에서 전통미술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의 뿌리이며 혼으로서,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삶의 표현으로서, 장구한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걸어서 같이 호흡해온 것이 전통미술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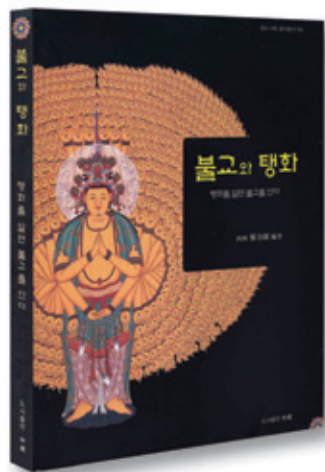
김익식 | B5변형 | 360쪽 | 25,000원 | 운주사



불교와 탕화

전통문화는 생명체와 같이 영고성쇠의 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나아가 이질적인 문화를 동화시키면서 결국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묻혀있던 우리의 훌륭한 불교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는 데 더욱더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정규진 | B5 | 237쪽 | 35,000원 | 중도



오채를 기본으로 음양오행사상에 따른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와 사상을 문양으로 나타내어지는 예술적 근간이 되는 것이 단청작업이다. 단청은 시대변천에 따라 표현방식과 채색법이 점점 발전하게 되었고 민족적 기호성과 예술적 표현으로 전통을 이어온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영자 | B5 | 255쪽 | 20,000원 | 용기민속박물관

서적·음반 구매에 관한 모든 문의는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음반총판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